

손으로 보는 세상



- **시선집중**
[성명서] 한국철도공사는 반복되는 지하철 추락 사고에 시각장애인 생명권을 보장하라!
- **테마기획**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시각장애인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 **인터뷰**
낮선 여행, 떠날 자유 제삼열, 윤현희 부부의 여행기
- **포커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투표했을까요?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월드컵

04 | 시선집중

▶ [성명서] 한국철도공사는 반복되는 지하철 추락 사고에 시각장애인 생명권을 보장하라!

06 | 테마기획

▶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시각장애인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08 | 인터뷰

▶ 낯선 여행, 떠날 자유 제삼열, 윤현희 부부의 여행기

10 | 포커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투표했을까요?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시각장애인 보험리모델링 가능할까?
이보훈(시각 1급_서울특별시 도봉구)

13 | 월드 리포트

▶ 포드, 시각장애인에게 풍경 보여주는 '필더뷰' 기술 개발
▶ 애플, 장애학생 대상으로 코딩 교육 시작!

14 | 뉴스앨범

▶ 한시련, 제9회 시각장애여성지도자연수 개최해
▶ 필라테스로 몸도 마음도 튼튼해져요!
▶ 스트링 아트로 가족과의 사랑을 만들어 보세요!
▶ 여행박사와 함께 신나는 가족여행을 떠나요!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잠시 자리를 비울 때



6월이면 전 세계인들의 축구 축제인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의 화려한 막이 열립니다.

월드컵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월드컵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쓰받침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ㅚ	ㅜ	ㅠ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ㅕ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가운뎃점 (.)	말줄임표(...)		말줄임표(...)		소괄호()		대괄호[]						
영어	영어시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포스트로피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ㅊ, 다음에 약자 영 ㅅ, ㅈ, ㅊ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성명서]

한국철도공사는 반복되는 지하철 추락 사고에 시각장애인 생명권을 보장하라!

지난 4월 21일 낮 지하철 중앙선 서빙고역에서 시각장애 1급인 71살 왕모 씨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4년도에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1급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떨어져 들어오던 전동차에 치여 머리뼈, 목, 어깨, 갈비뼈 등에 중상을 입었고, 이번에는 청춘열차 플랫폼으로 추락하여 갈비뼈 6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잊힐 만하면 이러한 참담한 소식을 들어야만 하는가?

왜 항상 한국철도공사 구간에서 시각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당해야만 하는가?

왜 사고 직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고는 끊이지 않는가?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고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진정성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비장애인 역시 사고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내가 언제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시각장애인 추락사고 당사자에게 수술비 등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KORAIL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규명과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에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투명하게 사고 경위를 조사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 설치율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시각장애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시각장애인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축구로 하나가 되는 축제,
월드컵인데요.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월드컵을 관람했을까요?



지난 6월 14일,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이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월드컵은 6월 14일부터 7월 15일(현지 기준)까지 계속되는데요. 경기의 실시간 생중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눈으로 경기를 보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은 월드컵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현재 국내에서 시각장애인들이 TV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해야 하는데요. 화면해설방송은 시각장애인에게 영상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장면의 전환,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대사 없이 처리되는 영상 등을 해설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화면해설 방송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TV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방송 및 행사와 관련된 방송 등을 화면해설방송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은 국내의 방송에만 국한되고 있어 올림픽, 월드컵 등과 같은 큰 국제 경기에서는 화면해설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경기대회: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 대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규정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은 월드컵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즐기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경기가 모두 끝나고 나면 경기 스코어만 가지고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대회 중계방송이나 개·폐회식 현장에서 수어나 화면해설 등이 생중계로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각,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부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의 화면해설방송에 올림픽, 월드컵 등과 같은 큰 국제경기대회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된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써 시각장애인은 이번 월드컵 역시 생중계 화면해설방송으로 즐기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월드컵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월드컵과 올림픽에서는 시각장애인도 생중계 화면해설방송을 통해 모든 이들의 스포츠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선 여행, 떠날 자유 제삼열, 윤현희 부부의 여행기

Q. 안녕하세요, 두 분 어떻게 만나셨나요?

윤현희 저희는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학교에 장애인 열람실이 있었는데요. 그 곳에 가면 가장 먼저 남편이 도착해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대부분 두 번째 로 도착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한 두 번씩 인사하다보니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Q. 혹시 현재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제삼열 저는 수서중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아내는 광고회사에 소속되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Q. 두 분이 직장이 있으신데 여행은 어디로, 어떤 시기에 계획하게 되셨나요?

윤현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 방학을 이용하게 되었고요. 저는 남편의 방학 시기에 맞추어 일을 앞당겨서 처리한 후 휴가를 내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Q. 여행지를 유럽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삼열 저희 부부는 여행을 좋아해서 아내는 지체장애인이고 저는 시각장애인이지만 함께 국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고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대부분 기차를 타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접근이 편리한 곳 위주로 가다 보니 갈 수 있는 곳이 적기도 하고 해서 새로운 여행지를 찾던 중 유럽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유럽 중에서도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윤현희 저희가 함께 간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많은 곳을 둘러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적은 곳을 가더라도 충분히 둘러보고 그 곳을 느끼고 오자는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두 곳을 여행지로 결정했습니다. 일정 중에도 다른 사람들 처럼 맛집이나 관광지를 찾아두고 다니지 않고 저희 발길이 닿는 대로 다니면서 원하는 곳에 가서 둘러보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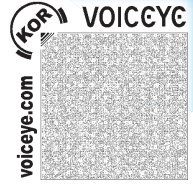
Q. 여행준비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제삼열 호텔을 예약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다 보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호텔이나 객실이어야 했는데, 호텔 예약 사이트에는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준비하면서 호텔마다 전화를 해보고 실제로 확인을 한 후에야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그렇군요. 여행지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윤현희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파리에 집시들이 많다는 것은 듣고 갔지만 유럽 사람들의 친절에 경계가 많이 풀렸을 때였어요. 저희가 장애인택시를 잡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갔는데, 막상 가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 때 어떤 분이 장애인 택시를 탈 수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잘못 알려주시기도 했고 갑자기 알려주었으니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집시였고, 돈을 노리고 저희를 데려간 것이었죠. 그 때 근처 역에 계시던 흑인 역무원분이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분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집시에게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Q. 그럼 흑시 가장 좋았던, 행복했던 기억은 어떤 기억인가요?

제삼열 영국의 옥스퍼드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 곳에 버스킹을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희미하게 보이시는 그분의 모습과 음악이 어우러져 너무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에게 듣고 싶은 노래가 있냐고 물으셨고 그 날이 마침 제 생일이라 생일 축하 곡이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때 들었던 생일 축하 곡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너무 좋아서 다시 되돌아오니 할아버지는 자리를 이동하셨는지 안 계시더라고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셨다는 느낌도 들고,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 이번에 두 분의 여행기가 ‘낮선 여행, 떠날 자유’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윤현희 사실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다녀오라는 긍정적인 응원보다는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유럽에 가보니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5살짜리 꼬마아가 휠체어가 들어갈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잡아주고 버스를 탈 때에도 승객들은 무조건 장애인이 먼저 탈 수 있도록 줄을 양보해 주더라고요. 또 지하철 안내판 에는 휠체어가 탑승하기 편한 역이 표시되어 있고 버스 기사가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나와서 도와주시기도 했는데요. 그 나라의 편의 시설이 엄청나게 좋고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인식이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에서 만난 분들은 모두 무뚝뚝했지만 그 무심한 친절이 참 좋더라고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투표했을까요?

지난 6월 13일,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거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시각장애인의 투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6월 13일, 시·도지사, 구·시·군 의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 의원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에게 선거에 앞서 투표참여에 대한 안내와 사전 투표방법 등이 담긴 투표 안내문을 보내는데요. 시각장애인은 점자 안내문과 음성 변환바코드가 실린 목자 안내문을 함께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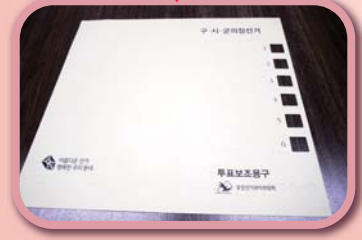
본 안내문에는 시각장애인들의 투표를 돕는 투표보조 용구의 사용법도 쓰여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은 시력의 장애로 인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표란에 딱 맞는 크기의 구멍이 뚫린 투표보조용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보조용구의 상단에 투표용지를 끼우고, 반대쪽 면을 접어 기표란을 구멍과 맞춘 뒤 기표란에 기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자로 된 투표 안내문을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언제 어디서든 전화를 통해 투표와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ARS음성투표안내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ARS 음성투표안내 서비스는 080-818-0613번을 통해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24시간 동안 제공되었는데요. 투표 일시 및 투표 시 주의사항, 사전투표·선거일투표·거소투표 안내, 투표소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안내 등 투표와 관련된 다양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표 안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점들도 존재하는데요. 매 선거 실시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별 후보들은 점자형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공약서를 제작하여 전국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배포하고 있지만 일부 정당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형식적으로 배포하거나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만 제작·배포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투표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보험리모델링 가능할까?

이보훈(시각 1급_서울특별시 도봉구)

최근 TV보험방송을 보면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을 생각하며 살펴보게 되었다. 평소에도 보험 상품에 관심이 남다른 터라 몇 년 전 생명보험사와 우체국을 중심으로 실손보험과 보장성보험 등을 가입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보험 방송을 보다가 보니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잘 가입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부족한 담보, 즉 보장이 되지 않는 질병과 상해 등이 있다는 사실과 보장 범위도 좀 더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기왕에 준비할 거 철저히 준비하지는 생각이 들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물론 이번엔 보험방송 전문가와 인터넷 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비슷한 상품군의 보험료를 비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같았고 이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보험 리모델링이란 중복된 보장들을 삭제하거나 빠진 보장을 추가하여 설계하거나, 짧은 주기의 갱신형 상품을 비갱신형으로 교체하는 과정 전체를 통칭하는 말로 이를테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보장으로 이루어진 상품들을 뇌경색을 포함하는 뇌졸중, 더 넓게는 뇌혈관 질환 보장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좀 더 폭넓게 보장 범위를 넓히는 등의 과정으로 무엇보다 현재 가입된 상품의 정확한 진단과 보완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과정들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손해보험사에 무해지 환급형 통합보험의 심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가입 거절이 나온 것이다. 보험사에서 이를 선심사라고 한다. 다만 희망한다면 암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는 화신이였다.

다시금 몇몇 회사에 심사를 넣어 보게 되었다. 여기에서 H보험사엔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심사를 의뢰하였고, N손해 보험사와 M손해보험사에도 심사를 의뢰하였다. 결과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였다. H보험사는 일전과 비슷한 인수 조건이었고, N보험사와 M보험사는 역시나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모두 인수 거절이 나온 것이다. 심지어는 A손해보험사의 경우 유병자를 위한 간편 심사 보험마저도 인수 거절이 나왔다. 이쯤에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 거론하였지만 최근 보험 트렌드상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사가 비슷한 담보에 대하여 보장 범위가 더 넓고, 비갱신형 상품이 가능하며, '3% 질병/상해 후유 장애' 보장과 같은 보험사 손해율이 매우 높다는 담보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입하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고 실제로 이러한 방향으로 '보험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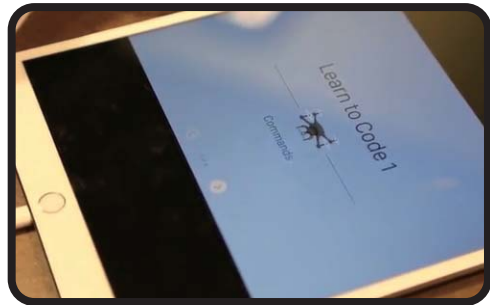
그러나 필자의 경우처럼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면서도 보험사의 가입 거절, 즉 인수 거절로 인해 그야말로 내 돈 주고 가입하고 싶어도 못 가입하는 그림의 떡이 되어 버린 것이다. 장애인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선 손해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왜 거절되는지 어떠한 의학적 연관성이 있어 모든 질병과 상해의 보장 담보들이 가입 거절되는지 따지고 듣고 싶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심사과의 가입 심사를 하는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럼 전화번호를 남길 테니 꼭 통화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심사과에서 내 보험 컨설팅을 해 준 보험전문가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그분도 왜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뇌질환과 심장질환 등의 담보가 가입이 안 되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어 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후 다시금 심사관과의 통화를 독촉하였더니 가입부서팀장, 지점장 등의 관련 없는 인사들을 거쳐 어렵게 심사관과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친절하게 웃으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자체 인수 규정이나 방침이라고만 말해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할까요?"라고 했더니 그러시라는 것이다. 그럼 자기네는 서면 답변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실갱이와 입장 표명 등의 시간들이 이어지다가 결국 그럼 다시 내부적으로 의논해 보겠다는 말을 듣고 논의 결과를 기다렸다. 이후 진단금 위주로만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하여 진행하다가 결국은 스코링이라는 것에 막혀 보험 가입이 좌절되었다. 스코링이란 보험사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상해사망이나 질병사망과 같은 담보들을 연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여기서 상해사망이 문제가 된 것이다. 원하지도 않는 보장 담보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이러한 관행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험은 국가가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로 커버하지 못하는 미진한 부분을 민영 보험사를 통해 뒷받침하려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가입이 무조건 거절되거나 회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민영 보험사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 차별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포드, 시각장애인에게 풍경 보여주는 ‘필더뷰’ 기술 개발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Ford)가 시각장애인들도 차창 밖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필더뷰(Feel the View)’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필더뷰는 포드와 시각장애이용 장비 스타트업 회사인 아에도(aedo)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되었는데요. 창문에 내장된 카메라가 풍경을 촬영하고 사진을 회색톤으로 전환하면 모든 색조가 각기 다른 강도의 진동으로 바뀌어 창문에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된 음성 지원 시스템이 온라인 인공지능과 결합해 어떤 이미지인지 알려 줄 수 있는데요.

포드는 차량에 탑승한 시각장애인이 255단계의 진동을 전송하는 창문을 통해 주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풍경을 볼 수 없는 이들에게 느낄 기회를 주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언어’라는 표현처럼 시각장애인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애플, 장애학생 대상으로 코딩 교육 시작!

세계적인 전자제품 회사인 애플이 올가을부터 미국 전역의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선도적 교육기관과 협력해 장애 학생 대상 코딩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자사 프로그래밍언어인 ‘스위프트’를 이용해 어린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누구나 코딩을 할 수 있다(Everyone Can Code)’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텍사스 등 8개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 교육을 통해 아이패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인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로 코딩의 기초부터 앱 제작 방법까지 배우게 되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애플의 앞선 보이스오버(음성 안내)기능을 활용해 화면을 보지 않아도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며, 청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페이스타임, 자막, LED 플래시, 아이폰 호환 보청기 등의 접근성 기술들이 수업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한시련, 제9회 시각장애여성지도자연수 개최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BS도고콘도에서 '제9회 시각장애여성지도자연수'를 개최했습니다.

본 연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을 위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각장애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 정보접근성, 복지정책 등 다각적인 시각장애계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한시련은 이번 연수를 토대로 향후 시각장애여성계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쓸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정책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필라테스로 몸도 마음도 튼튼해져요!

최근 스트레칭과 체형교정에 좋은 필라테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서울특별시립 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의 후원으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필라테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 희망튼튼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이번 프로그램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차는 5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2차는 9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 2회, 1시간씩 진행되는데요,

이용자와 학생들이 1대1로 매칭이 되어 자세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주 2회 꾸준한 필라테스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건강이 증진되길 바랍니다.



스트링 아트로 가족과의 사랑을 만들어 보세요!

지난 5월 19일과 26일 토요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스트링아트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스트링아트는 나무판 위에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하고 그 못들 사이를 끈으로 연결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인 하트모양의 액자를 만들었는데요.

두 클래스에 시각장애인 12명이 참가해 액자를 만들며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빨간 하트모양의 액자처럼 참가자들의 가정에도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행박사와 함께 신나는 가족여행을 떠나요!

지난 6월 1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7가정이 주식회사 여행박사의 후원으로 강원도 강릉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여행에서는 참소리 축음기 에디슨 영화박물관 관람, 정동진 레일바이크 탑승, 삼양 양떼목장 체험, 옥계 해변 산책 등 다양한 체험이 이어졌는데요. 좋은 날씨와 함께 자연을 만끽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안내할 때 아니면 회의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잠시 자리를 비워도 괜찮으시겠어요?”라고 양해를 구한 후 자리를 떠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돌아왔을 때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말없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실례가 됩니다. 누구나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리를 비우는 당사자가 말없이 일어섰다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변사람들이라도 주위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손으로보는세상 2018년 6월 215호

발행일 2018년 6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